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부모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

마지순^{1*}, 박정환², 문창배²
¹거제대학 유아교육과, ²제주대학교 교육학과

The influence of parent attachment on the parenting perception for university student

Ji-Sun Ma^{1*}, Jung-Hwan Park² and Chang-Bae Moon²

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je College,

²Dep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부모역할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W대학의 대학생 223명이었으며, 연구도구는 대학생들의 인구변인학적 문항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척도와 부모역할 인식에 대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적률상관계수와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대학생의 어머니와 아버지 애착과 부모역할 인식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의사소통, 신뢰감은 부모역할 인식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외감은 부모역할 인식과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대학생들의 부모애착 중 아버지의 신뢰감이 부모역할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애착이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about influence on parenting by parent attachment. The subjects were W university students 223 of Jeon-buk province. The questionnaire includ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 and parenting perception.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mother and father) attachment and parenting perception was found to a positive relationship. especially, communication and reliability of parent attachment. But between isolation of parent attachment and parenting perception was found to a negative relationship. Second, the parenting perception influenced by father's reliability among of parent attachment and the next was mother's communication.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Parenting

1.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에 이어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역할기대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 결혼의 연기, 높은 이혼율, 가족크기의 축소 등은 가족의 강한 일체감을 약화시키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가족의 내용과 기능을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결혼을 하면 부모가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자녀의 출산을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 인식에도 많은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15]. 이러한 변화들에 의해 우리사회는 저 출산 문제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역할의 뚜렷한 가치관의 부재는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부모역할 인식이 부족한 원인은 전통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들을 가정 내에서 전수되어 왔으나 현대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하면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부모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며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아동 발달

* 교신저자: 박정환(edu114@jejunu.ac.kr)

접수일 09년 10월 06일

수정일 09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 09년 11월 12일

이나 부모 역할에 관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23].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어 다른 어떤 역할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24].

그와 달리 부모역할 수행에 관한 명료한 개념화를 형성한 경우는 부모 자신의 적응이나 자녀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47]. 그러나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형성이 부모가 되었을 시점으로부터 형성되어지기 보다는 그 이전에 형성되어야 한다 [40]. 그리하여 한 개인이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미래에 부모가 될 청년기부터 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리발달과정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역할은 성인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청년후기와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부모가 될 주체로서 부모역할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은 부모역할의 책임과 부담을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된 후의 적응을 도와주어 부모역할 수행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14].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모델이며, 자녀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사회화 과정의 중요 핵심역할을 하면서 자녀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며 많은 영향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29,49]. 그러므로 부모 역할이 자녀의 성장 발달에 직·간접 요인이 됨을 시사하며 부모의 역할수행에 따라 자녀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다른 양상을 띠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모역할로의 전이는 개인의 생활, 배우자와의 관계, 동료와 친지와의 관계 등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개인에게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26]. 그러나 부모역할의 특성으로 볼 때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힘든 중요한 역할전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부모역할의 특성상 자녀가 한번 잘못 양육되면 수정되기가 어렵다는 인간발달의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1,11].

발달의 생태학적 모델을 적용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능력의 차이는 주로 가족 그 삶의 역사에 그리고 현재의 삶이 진행되는 상황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33]. 특히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원 가족에서의 경험, 자아 존중감, 교육 수준과 같은 것들로서 인생초기의 경험들이 반영된다[1]. 그러므로 부모역할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나 나를 양육해준 성인들에게서 학습될 수 있다[36]. 즉, 나를 양육해준 사람이 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의 모델이 되며, 원 가족에서 관

찰하고 실천했었던 기본적인 관계 유형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재생산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7,28].

실제로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 중 대학생의 부모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3,7,16]등에서 볼 때 부모역할 인식은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들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평가하고 자신이 미래의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예측해 본 결과 이들 간에 서로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던 연구와[7] 친부가 부성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지각할수록 미래에 본인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부성역할을 잘 수행하리라고 지각하였던 연구결과[20]들은 부모역할이 다음세대의 부모에게까지 전이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부모와의 경험이 자신의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되어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부모처럼 자신의 자녀를 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언하는 인자로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형성된 부모역할의 내적실행모델은 자녀와 양육자 사이의 경험들이 많은 수정과 적응을 통하여 내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하게 된다[30]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생초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 조부모, 그리고 다른 친인척에 대한 애착으로 확장되고 그것은 다시 또래, 친구, 배우자로 확장되며 더 이후에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볼 때[20] 애착의 지속성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애착의 내적실행모델을 통한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지며 이는 부모역할 인식과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부모애착에 관한 연구는 어린 영유아기의 발달과 관련하여 많이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부모역할과의 관련성을 찾기 보다는 부모애착과 대학생 자신의 진로탐색[4,17,21,35],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연구[18]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기를 이해하고 부모가 되려는 긍정적인 동기 혹은 기대를 가지며 부모역할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화는 이미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치료적인 접근보다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예비부모 즉 청소년이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적 입장에서의 접근 방법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부모가 될 사람들은 대학생들은 생리 발달적 관점에서 부모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에 관한 준비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에 대한 관리 중재 및 교육이 미흡한 상태이다[24].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부모역할을 인식하는데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애착은 부모역할 인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 1-1.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애착은 부모역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2.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애착은 부모역할 인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애착

애착(attachment)이론은 어머니-영유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지금은 전 생애에 걸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Bowlby의 내적실행모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내적실행모델이란 각 개인이 자기와 타인 그리고 주변 세계에 대하여 가지는 내적인 표상으로써 생후 1년 동안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그 기초가 형성되는 것으로 애착모델이 정서적이고 탐색적 활동을 지지해주는 맥락일 때 가치있고 유능한 자기의 실행모델이 형성된다[42]. 특히 애착의 내적실행모델은 개인이 정서적으로 반응해야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며 개인 자신에 대한 지각과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9]. 그리하여 개인은 자기의 귀인(attribution)을 형성하고 대인관계에서의 행동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며 사회적인 경험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는 등 자신의 관심을 이끌어 나가고 기억을 조직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초기의 애착 연구는 부모와의 애착(attachment)이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만 형성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전 생애 동안 부모-자녀관계 뿐 아니라 부모와의 타인인 형제관계, 또래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다. 부모애착은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유대감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다[50]. 그러므로 애착의 내적실행모델은 한 개인이 일차적인 애착대상에 대

한 내적인 표상을 획득하여 이를 가까운 다른 관계 형성을 위한 청사진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부모에 대한 애착을 통해 형성된 내적 표상은 타인과의 안정적 관계형성에 기여하며, 나아가 건강한 개인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52]. 그러한 예로 부모의 관계가 좋았다고 회상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혼생활도 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6,29]. 이와 같이 초기애착의 특성은 후의 동료와 다른 성인들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반이 되며 청소년기에 더욱 확고해지거나 수정, 변형된다[21]. 즉 유아기의 애착은 생존하기 위해 애착인물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청소년기의 애착은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배우면서 생겨나는 강력한 정서 상태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청년기는 내적실행모델의 재확립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애착은 관계적 특성에 많은 변화가 생길 뿐 아니라 애착조직(attachment organization)과 그 기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안정 기저의 핵심은 그들이 자율적인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 생겨나는 광범위한 정서 상태를 탐색하게 위한 것으로써 청소년기의 주요 애착인물의 현재 행동에 적응하기 위해 개발된 반응세트를 반영하는 것이다[18,27].

그러므로 부모와의 애착은 개인의 내적 실행 모델이 되어 성인기에도 세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다른 관계들보다 애정적 유대가 강하며, 딸이 어머니에게 더 많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40,48]. 조윤주[48]의 연구에서도 딸이 아들보다 부모와의 애착이 더 강했으며 갈등 정도는 적었다. 반면 성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보고되었으므로[51]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을 분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2.2 부모역할

부모역할이란 '부모'가 수행해야하는 일련의 행동과업으로서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사회화하며, 교육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부모역할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 교육수준, 가치관, 신념체계, 그리고 경험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자녀를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양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12]. 그러므로 부모역할은 어린 자녀의 양육, 지도, 문제해결 및 모델링의 제공, 사회화 제공, 그리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원만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모든 부모가 같은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역할을 형식적으로 교육받는 것 또한 아니다. 다만 부모가 자신이 받아온 양육방식, 부모의 성격,

그들이 사는 사회문화, 부모자신의 가치관, 자녀관 등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취해진 양육방식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역할의 행동은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요소들 즉 생물학적, 개인적, 사회적, 인종적, 문화적, 상황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출생가족에서 자기가 성장한 가족에 이르기까지의 관계의 연속성은 부모-자녀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혼만족도나 결혼의 안정성 역시 세대 간의 일치성을 보이며 그러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반복적으로 증명되었다[6,31,32,4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화윤 등[7]의 연구는 대학생들이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서로 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부모역할의 수행이 그 다음세대의 자녀들에게 학습됨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절한 양육을 받았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모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을 전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긍정적인 부모역할의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영아기 때부터 전 생애에 걸쳐 부모 사이의 경험들이 많은 수정과 적응과정을 통하여 내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30].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는 부모애착 관계는 부모역할을 인식하는데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설계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 W대학의 대학생 223명이며, 자료의 수집은 W대학의 일반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부모-자녀 관계론을 수강하는 대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둘째 주에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한 부모만 존재한 경우의 질문지 7부, 기재사항이 미비한 질문지 15부를 제외한 223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분포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연령은 18세에서 31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20세였다. 연구대상들은 자녀계획에 대해 83.4%가 자녀를 갖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6.3%는 갖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10.3%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분포는 표 1 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변인별	n(%)	전 체
성별	남자	62(27.8)	223 (100.0)
	여자	161(72.2)	
학년별	1학년	57(25.6)	223 (100.0)
	2학년	75(33.6)	
	3학년	72(32.3)	
	4학년	19(8.5)	
자녀계획	있음	186(83.4)	223 (100.0)
	없음	14(6.3)	
	모르겠음	23(10.3)	

3.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대학생들의 일반배경에 대한 인구변인학적 문항과 부모에 대한 애착척도와 부모역할 인식에 관한 질문지이다.

1)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는 1987년 Armsden과 Greenberg에 의해 개발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정성숙[25]이 번안하고, 임지연[21]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IPPA는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로서 하위영역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의사소통애착, 신뢰감애착, 소외감애착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영역의 의사소통 애착의 10문항은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질을 측정하며, 신뢰감 애착의 10문항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에 있어서 안정성을 측정하며, 소외감 애착의 8 문항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유리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측정한다. 본 도구의 총 28문항은 5점 Likert 척도가 이루어졌으며 소외감 차원을 구성하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부정적 문항들은 역채점 하였다. 부모애착 척도는 신뢰감과 의사소통 애착 문항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소외감애착 점수를 뺀 점수로써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였으며 하위영역은 의사소통이 Cronbach's α .73, 신뢰감 Cronbach's α .81, 소외감 Cronbach's α .89 이었다. 하위영역별 변인별 구성요소는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척도영역
*은 역채점 문항임

하위영역	해 당 문 항
의사소통	1, *7, 8, *11, 13, 16, 17, 20, 23, 28 (10문항)
신뢰감	2, 3, 4, 6, *10, 14, *18, 21, 24, 26 (10문항)
소외감	5, 9, 12, 15, 19, 22, 25, 27 (8문항)

2) 부모역할에 관한 질문지

부모역할에 관한 질문지는 Veevers[43]와 Fawcett[44]을 참고로 유안진, 신양재[16]가 개발한 17개 문항과 이항순, 유안진[20]이 번안하고 제작한 13개 문항을 통합한 21개 문항을 사용하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거쳐 14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대학생들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행했던 정은순[24]의 도구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5점 Likert 식 척도로 최고 70점에서 최저 14점까지로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었다.

3.3 자료분석

대학생들의 인구변인학적 분석을 위해서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대학생들의 부모애착과 부모역할 인식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부모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해석

4.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부모역할 인식의 관계

대학생들의 어머니와 애착 관계는 부모역할 인식은 정적인 상관($r=.287,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애착($r=.309, p<.001$), 신뢰감 애착($r=.275, p<.001$)은 부모역할 인식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반면 어머니의 소외감 애착은 부모역할 인식과 부적상관($r=-.149,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대학생들의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 역시 부모역할 인식 전체와 정적인 상관($r=.335, p<.001$)이 있었으며, 특히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r=.321, p<.001$), 신뢰감 애착($r=.338, p<.001$)은 부모역할 인식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반면 아버지의 소외감 애착은 부모역할 인식과 부적상관($r=-.177,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대학생들의 부모애착과 부모역할 인식과의 관계

부모역할 \ 부모애착	어머니	아버지
의사소통	.309***	.321***
신뢰감	.275***	.338***
소외감	-.149*	-.177**
전체	.287***	.335***

즉, 대학생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의 애착이 높을수록 부모역할 인식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외감 애착이 높아지면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4.2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과 부모역할 인식과의 관계

남학생들의 어머니와 애착 관계는 부모역할 인식 전체와 정적인 상관($r=.244, p<.001$)이 없었지만 하위영역의 신뢰감은 부모역할 인식과 정적상관($r=.274,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의사소통 애착($r=.193, p>.01$), 소외감 애착($r=-.158, p>.05$)은 부모역할 인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남학생들의 아버지와 애착관계는 부모역할 인식 전체와 정적인 상관($r=.265,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버지의 신뢰감 애착($r=.345, p<.001$)은 부모역할 인식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 애착($r=.214, p>.05$)과 부모역할 인식은 상관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소외감 애착과 부모역할 인식은 부적상관($r=-.112, p>.05$)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다[표 4].

여학생들의 어머니와 애착 관계는 부모역할 인식의 전체와 정적상관($r=.298, p<.001$)이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의사소통 애착($r=.345, p<.001$), 신뢰감 애착($r=.274, p<.001$)은 부모역할 인식과 정적상관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소외감은 부모역할 인식과 부적상관이($r=-.138, p>.05$)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여학생들의 아버지와 애착관계는 부모역할 인식 전체와 정적인 상관($r=.362,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와 의사소통 애착($r=.363, p<.001$), 신뢰감 애착($r=.337, p<.001$)은 부모역할 인식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소외감 애착은 부모역할 인

식과 부적상관($r=-.196,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표 4]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과 부모역할 인식과의 관계 (n)

	부모애착 부모역할	남학생 (62)	여학생 (161)
어머니	의사소통	.193	.345***
	신뢰감	.274*	.274***
	소외감	-.158	-.138
	전체	.244	.298***
아버지	의사소통	.214	.363***
	신뢰감	.345**	.337***
	소외감	-.112	-.196*
	전체	.265*	.362***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대학생들이 인식한 부모애착과 부모역할 인식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들은 아버지의 애착이 높을수록 부모역할 인식을 높게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부모역할 인식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과 부모역할 인식 전체와 관련이 있었다. 즉 여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애착이 높을수록 부모역할 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소외감 애착이 높아지면 부모역할 인식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4.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부모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부모애착 중 아버지와의 신뢰감이 부모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11.4%의 설명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14.0%로 설명할 수 있어 2.6%를 더 설명해주고 있다[표 5].

[표 5] 부모애착이 부모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

예언변인	B	β	R	R ²	F
constant	41.988				
아버지의 신뢰감	.400	.338	.338	.114	28.304***
constant	36.240				
아버지의 신뢰감	.289	.244	.374	.140	17.853***
어머니의 의사소통	.279	.187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애착 변인들 중 아버지의 신뢰감이 대학생들의 부모역할 인식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그 다음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애착임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이다. 즉, 부모역할을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애착은 아버지와의 신뢰감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요인임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 부모애착이 부모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표 6에서와 같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학생들의 부모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은 아버지의 신뢰감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1.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애착이었다.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은 부모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3.4%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머니의 의사소통 애착의 영향력은 16.1%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부모애착이 부모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

	예언변인	B	β	R	R ²	F
남학생	constant	40.775				
	아버지의 신뢰감	.413	.345	.345	.119	8.128*
여학생	constant	42.955				
	아버지의 의사소통	.411	.365	.365	.134	24.348***
	constant	36.862				
	아버지의 의사소통	.280	.249	.401	.161	15.059***
	어머니의 의사소통	.297	.203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에 따라 부모역할 인식을 예언하는 요인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남학생들의 부모역할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버지의 신뢰감이 가장 많은 높은 요인인 반면 여학생들의 부모역할 인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애착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부모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부모역할인식의 관계는 의미있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특히 어머니와 아

버지의 애착 중 의사소통, 신뢰감의 애착은 부모역할 인식과 정적인 상관관이 나타난 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외감은 부모역할 인식과 부적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부모와의 신뢰감이 형성된 자녀가 의사소통에서도 우호적이고 개방적이며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부모가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역할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신뢰감과 의사소통 애착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부모의 소외감애착은 부모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견해는 독립적일 수 없다는 Vivona[46]의 견해로 볼 때 대학생들이 부모역할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부모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49,51]. 그러므로 부모와 소외감 애착이 형성될 경우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시기는 자신의 내적실행모델을 수정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대학생들이 미래의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학생들은 어머니애착과 부모역할 인식의 전체는 상관관이 없었지만 어머니와의 신뢰감만은 부모역할 인식과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애착은 부모역할 인식 전체와 의미있는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으며, 특히 아버지와의 신뢰감 애착은 부모역할 인식과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대학생이 친부와 친밀하다고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아버지는 의논상대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미래의 본인이 부성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지각하였던 이항순, 유안진[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반면 여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애착과 부모역할 인식 전체가 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사소통, 신뢰감 애착은 부모역할 인식과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아버지와 형성한 소외감 애착은 부모역할 인식과 부적상관이 있었다.

남학생은 어머니애착 보다는 아버지 애착이 부모역할 인식과 관련이 있었으며 여학생은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 모두의 애착이 부모역할 인식과 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지나 접근성을 추구함으로써 어머니와 높은 애착의 질을 형성하고 남학생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지지 및 접근 추구가 감소하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독립적이 된다는 애착의 성차를 시사 한 연구의 입장에 비추어보면[18,48] 부모애착의 성차가 부모역할 인식의 성차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여학생들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애착은 부모역할 인식과 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 즉 아버지도 자녀를 돌보는 기능을 하고 아버지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자녀가 아버지를 애착대상으로 삼아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의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하며 이를 자신의 부모역할 인식에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부모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대학생들의 부모애착 중 아버지의 신뢰감이 부모역할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애착이었다.

즉 대학생들의 부모역할 인식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의 신뢰감이었다. 이는 영아기 때부터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영아기 때는 많은 양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일차적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신뢰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자녀가 발달함에 따라 아버지와의 신뢰감형성도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는 결과이다. 반면 어머니의 의사소통애착은 부모역할 인식에 두 번째로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애착 요소이다. 어머니는 어린자녀시기부터 성인기에 접어드는 자녀들까지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은 달라진다. 부모와 자녀는 각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데 부모는 생산성대 자아침체의 심리사회적 단계로 진입하여 자녀에 대한 신뢰와 양육이라는 심리사회적 요구를 갖게 되는 한편, 자녀는 이와 다른 심리사회적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모의 욕구와 자녀의 욕구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호작용과의 일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의 애착은 자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인 의사소통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때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하고 부모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부모애착이 부모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학생들의 부모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은 아버지의 신뢰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부모역할에 미

치는 영향요인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애착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으며, 다음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애착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최근의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진 연구들의 맥락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역할은 양육초기부터 성인초기까지의 심리적 안녕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45]. 본 연구를 통해서 보면 남학생들의 부모역할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와 형성된 심리적 애착이다. 이는 아버지가 도구적 역할이 대표적인 부모역할이었지만 부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의해 아버지도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녕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이며 주로 어머니가 담당했던 신뢰감 등의 정서적인 면을 병행할 때 좀 더 긍정적인 아버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여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이 부모역할인식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여준다. 부모의 언어적 의사소통은 자녀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37], 의사소통의 내용은 자녀의 성역할 정체성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8]. 성역할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부모역할 인식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고 볼 때 본 연구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부모역할인식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즉 여학생들은 부모와의 접근성을 통하여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여학생들의 부모역할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예비부모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W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이 제한적이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표집인원이 다소 부족한 점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애착과 부모역할 인식에 대한 양적인 분석으로 부모역할 인식에 영향을 주는 대학생들의 부모애착의 현상학적인 질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부모애착이 부모역할인식과 관련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에는 내적실행모델을 재 수정하는 시기이므로 대학생들에게 미래의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 바람직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대학생들은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또래 또는

다른 성인과 많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인들이 부모역할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1] 구광현, 김영숙, 이수남, 이은상, 최양미, 부모역할과 자녀교육, 교육과학사, 2002.
- [2] 권미경, 대학생의 부모역할 인지에 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제 10권 4호, pp. 413-422, 2004.
- [3] 김은주, 여대생의 부모기 인식, 부모됨 동기 및 부모역할 동의, 아동간호학회지, 제 12권 1, pp. 89-95, 2006.
- [4] 김은진,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5] 박병태, 부모, 또래애착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6]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학지사, 1996.
- [7] 박화윤, 최재숙, 마지순, 부모역할, 자녀양육과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아동학회지, 제 23권 5호, pp. 65-76, 2002.
- [8] 방희정, 애착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제 14권 1호, pp. 67-91, 2009.
- [9] 김은주, 여대생의 부모기 인식, 부모됨 동기 및 부모역할 동의, 아동간호학회지, 제2권 1호, pp. 89-95, 2006.
- [10] 신향숙, 장윤옥,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9권 5호, pp.189-202, 2001.
- [11] 숙명여자대학교아동연구센터, 현대사회와 부모,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12] 양옥경, 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7권, pp. 175-199, 2001.
- [13] 오송희,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14] 유계숙, 정현숙,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0권 3호, pp. 39-47, 2002.
- [15] 유안진, 김연진, 부모교육, 정민사, 1987.
- [16] 유안진, 신양재,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4호, pp. 141-155, 1993.
- [17] 이내은,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8] 이시은, 이재창,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또래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4호, pp. 947-963, 2005.
- [19] 이은경,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20] 이항순, 유안진, 남자 대학생의 친부에 대한 친밀도와 부성역할 지각 및 미래자기부성역할 지각간의 상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2호, pp. 215-225, 1996.
- [21] 임지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2] 장휘숙, 애착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심리학회 구두발표, pp. 276-277, 2006.
- [23] 정미라, 이희선, 배소연, 대학생들의 예비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연구, 제 15권 1호, pp. 179-197, 1995.
- [24] 정은순, 대학생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조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5] 정정숙, 자아 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26] 현온강,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27] Allen, J., & Land, D., Attachment in adolescent.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pp. 319-335). New York: Guilford Press
- [28] Benson, M. J., Arditti, J., De Atilas. J. T. R., & Smith, 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ttributions in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intimate others. *Journal of family issue*, 13(4), 450-464, 1992.
- [29] Bretherton, T.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pp. 3-38. 1985.
- [30] Bretherton, T., & Munholland, K. A.,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A construct revisited. In J. Cassidy, P. R. Shaver(Ed.),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9.
- [31] Eysenck, H., & Wakefield, J., Psychological factor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Advances in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3, pp. 151-192. 1981.
- [32] Goodrich, W., Ryder, R., & Rausch, H., Patterns of newlywed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0, pp. 383-389, 1968.
- [33] Goodyer, I. M. Family relationships, life events and childhood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 1990. 654-192.
- [34] Hazzard, A., Christensen. A., Margolin, G.,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J Abnorm psychology*, 11(2), pp. 49-59, 1983.
- [35] Ketterson, T., & Blustein, D. L.,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pp. 167-178, 1997.
- [36] Lewis, J. M., & Owen, M. T., Stability and change in family -of- *orthopsychiatry*, 55(4), pp. 614-618, 1995.
- [37] Leaper, C. Anderson, J. K., & Sanders, P., Moderators of gender effects on parents' talk to their children: a meta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pp. 3-27, 1995.
- [38] Maccoby, E. E. & Marta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IV*. N.Y: John Wiley & Sons, 1999.
- [39] Main, M, Kaplan, N., & Casidy, J.,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Q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L.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33-3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1985.
- [40] Rossi, A. S., Transition ti parenthood, In A. Skolnick, & J.K.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 5 ed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 [41] Snyder, D.,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 pp. 813-823, 1979.
- [42] Sroufe, L. A. & Fleeson, J.,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 51-71). Hillsdale, NJ: Erlbaum, 1986.
- [43] Veevers, J. E. The social meanings of parenthood. *Psychiatry*, 36, pp. 391-310, 1973.
- [44] Fawccett, J. T., The value of children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riage and family review*, 12, pp. 12-34, 1988.
- [45] Veneziano, R. The importance of farther love: History and contempory evidence. Review of general of psychology, 5(4), pp. 382-405, 2001.
- [46] Vivona, J. M., Parental attachment styles of late adolescence: Quality of attachment relationship and consequences for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pp. 316-329, 2000.
- [47] White, D. & Wollett, A., Families. A context for

developmnet. London: The Farmer press, 1992.

- [48] 조윤주, 성인기 애착 안정성에 관한 연구- 이성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부양의무감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1호, pp. 75-92, 2009.
- [49] 이윤영, 전효정,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성인 애착유형과 사랑유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14권 2호, pp. 99-121, 2009.
- [50] 노유진, 박정윤, 김양희, 성인애착유형과 미혼남녀의 사랑유형 및 이성교제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제44권 12호, pp. 31-42, 2009.
- [51] Turner, P. J. Relation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 pp. 1475-1488, 1991.
- [52]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또래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4권 1호, pp. 31-41, 2006.

마 지 순(Ji-Sun Ma)

[정회원]



- 1991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문학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교육학 석사)
- 2004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거제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부모교육, 유아 교사교육

박 정 환(Jung-Hwan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교육공학, 유러닝(U-Learning), 포트폴리오 평가

문 창 배(Chang-Bae Moon)

[정회원]



- 1995년 2월 : 제주대학교 상업교육과(경영학사)
- 2003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이학사)
- 2006년 2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과(컴퓨터교육학 석사)

- 2008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과정(교육공학전공)

<관심분야>

교육공학, 유러닝(U-Learning), 포트폴리오 평가